

직업선택보다 직업의식

느끼게한 등급판정 현장실습

강원대학교 : 박동오



2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앞둔 겨울방학이라 학창시절 뭔가를 경험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현장실습을 신청하게 되었다.

천장의 레일에 끝없이 걸려있는 소와 돼지들은 처음 보는 나에게는 어느 소가 좋은 등급을 받을 것인가 보다도 성별만이라도 구별할 수만 있다면 좋을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며 하나 하나 알아가는 기분은 정말 'good'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

하루, 이를 실습을 하는 날들이 지나가면서 '축산물등급판정소', 특히 '등급판정사'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등급판정사들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등급판정사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을 떠나서 책임감과 공정함이 있어야하는 중요한 위치에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등급판정사 선배님들께서 해주신 말씀들 중

에서 "시험은 90점 이상을 맞으면 통과를 하지만, 우리들은 100점을 맞아야 한다,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며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등급판정사분들을 보며 앞으로의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도 '어떤 직업이 나?' 보다는 '어떤 직업의식이 필요한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현장 체험중 평상시 생활은 오전 현장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등급판정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쌓기 위해 참고 서적으로 공부했고, 우편작업 등을 하며 현장업무의 많은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었다. 아직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지는 않아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등급판정사 선배님들과 하루 일과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였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되지 못해 너무 아쉽지만 작은 일이라도 나누어 주시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고 매일 현장에서 도체를 평가하는 기준과 등급판정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실습기간 동안 여러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대학 수업과는 달리 이번 현장실습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해 실습을 시작하게 됐지만 이렇게 많은 결연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먼저 이번 실습기회를 갖게 해주시는 강원대학교 송영한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가족같은 화목한 분위기로 다정다감하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신 축산물등급판정소 서울지소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시창 : 술 먹고 심을 때나 ~~한~~에 오면 바키육 선배한테 꼭 연락하시고,, 약속시간과 장소 잡고 내한테도 꼭 연락하세요!! ㅋㅋㅋ ..

윤희소 : 정년이 건강하네요들을 만나 나 또한 하운하는 것 같아 아주~ 아주~ 좋습쇼. ... 항상 건강하고 밝고 행복하길~ 아지~ 파이팅!!

황인경 : 짧은 만남이었지만 만나서 바키웠어요,, 모든일에 항상 열심히하는 모습,, 앞으로도 건강하길 바래요,, 항상 건강하길...

이동희 : "거친 파도와 바닷은 훌륭한 배사공을 만든다" 라는 말이있다. 실습기간 동안 내가 좀 거칠었지? ㅎㅎㅎ